

조항사 장군을 맞나 오니 디행이 오나 의멸적으로 유현왕에 협이 되얏사 오니 그 마암  
 은 변치 아니하야 써나 제송무지하의 다도한 유현왕이라 하는 거선 그 재예 용명을 보오  
 미능이 호공 환우하며 승려도 강지술이 잇사 오며 만인에 심이 잇고 팔만 제졸을 부리여  
 임의 용지하오니 그 조화 난 참귀신이 라 방금 출도 미반하얏사 오니 장군이 순입 혈중하  
 사일고 죽승하 시오니 이 난명련이 도으심이라 일지기 출혈하시압기를 천만 바라나 이  
 다 만약 도슈들어 온즉 사불성실하 시와 후시 그 혀를 볼가 두려하나 이 다 십분 처분하옵  
 소서 관슈총파에 디노왈요 망흔기 집이 웃지이 갖치 불길한 말을 니난고 종인에 마암을  
 요동케하 니 죄당살지나 황제에 명이 갖친인명을 살여 너오라 하신고로 아 직용셔하거  
 니와 일후만약이 갖튼 말을 니면 군법을 면치 못하리라 네가 유현왕에 협이 되야 써나 속  
 히 출혈하야 안일한 썸을 짓난다 하며 너 썸치니 흥년이 피축이 되하야 심사지하 니 원  
 통이 입골이라 종신도록 혈중귀신을 면치 못하리니 탁식심장이로 다 관수가 람재호식  
 하야 속불출혈하 고 음주자락하 더니 일사은 광풍이 되 작하며 사척이 비양하 고 운무자  
 옥하니 이 난반다 시 유현왕이 들어 오난 귀운이라 흥년이 황사 급사하야 다시 고왈금일  
 도슈 유현왕이 들어 오니 복원 장군은 양척을 지여 불우지 변을 막으소서 관수 더욱 디노  
 하야 흥년을 옥중에 가 두우고 오 후에 출참하리라 하 더니 쪽금잇다가 풍운이 되 작하며  
 유현왕이 들어 오난 디선장이 십여척이 요형용이 괴괴한 디손에 난사 두디 창을 잡고 관

슈에 군을 치니 관슈불의에 유현왕을 만나 군사로 하야 금막게 하 고 손에 금옥보 피를 쥐  
 고 안저 더니 수합이 못되야 군사되 피곤지라 홀연이 일광이 청명하 며 풍운이 쉬난지라  
 요마가 장창을 두루며 들어가니 관슈에 일신이 졸지애사 두창흔 틈을 면치 못하얏더라  
 흥년을 푸러 노으며 왈 너가 쪽금 늦게와 써면 거의 너를 상할번하 여다 하 니 흥년이 심  
 각하 미명졸이 다 죽은지라 누슈장유하 니 왕이 문왈 상한디가 잇는 노년이 천연디 왈 디  
 왕이 일지기도라 오시지 아니하셔 시면 협이 장차 죽을지라 이 제구하 여 주시니 은덕이  
 중흔지라 희심이 충격하야 불각누하 로 소이다 왕이 디희하야 등을 만지며 왈 들어올썸  
 에 혈외에 여간 잇난 명졸을 다 죽인지라 죽키 두려 할비읍시니 안심할지여 다우 리 군사  
 와 백성이 상한재 불소하 니 분심이 령련흔지라 결코 명련조에 게보수 할바 요번시 명국  
 을유의하얏 더니 잘되엿다 하 니 흥년이 너 심탁지하 미이 거시 만약 나가 면디 명천지에  
 비록 영웅호걸이 만라하 나 근심이 적지아 나 홀지라 이 난도 시너 일신으로 인연하야 화  
 불단형으로 디화가 국가에 밋철이 니 차장너하 오조흔 말로 하야 왈 디왕은 쉬일지  
 어 다일시 지분을 웃지심중이 두사이 갖치하 시리 잇가 디왕이 만약 군사를 거느 리고 인  
 간에 나가 시면 조만을 아지 못할지라 접은 웃지 홀로여 기 잇사 오 리요 왕이 디희 디소하  
 며 왈 디명철의론은 파하리니 안심하 라하 더라 잇썸 디명황제 관수를 보느 시고 주야로  
 근심이 죽지아 니하 시 더니 일사은 혈중에 들어 갖다 보하 더니 그 후로 난종부소식이 라

언안의슈식이 가득하시더니 혈외에엿던군사게우잔명을부지하야도라와보하되관  
 수군사천여명을다리고혈중에들어간지심여일리지나되종무소식이압더니불의에  
 유현왕이라총하난거시오호환우하교와서호등하난소리에여간혈외에잇난나졸은  
 다죽고소졸은슈림서이에피신하야와사오느혈중으로들어갓시니혈중에잇난장졸  
 은발서다죽을거시나실로디겁하나이다황제드르시고디경하사서안을처탄식하사  
 왈이갓든디여를웃지하면소멸할고공연이불상한장졸만죽이여씨니도시짐에과실  
 이라빅관을모되우시고상의하시니하신이부지사죄한디황제명하사붓들이리키  
 여왈경은웃지이갓치하나뇨하시나잇씩병부상셔리관원이분심이충천하야웃지하  
 면너야우관수에원수를갑푸리요이난반다시한림하신에연괴라하교허다한병마군  
 졸을죽이고국자를허비하야사오니이난도서하전에죄라그죄를사하지못하리이다  
 하고부지주달하니이사람에성품이또한양남에마암이잇셔타인에공을투기하며사  
 랫죽이기를도와하야국권을회롱하고병권을총집하야연결디진하고일심을숨어승  
 상남관목과한가지역심을두고자하느황제에명찰하심과하신에총직함을두려하고  
 총의하고중디함을시괴하야히할마음을먹어더니이씩을당하야참소함이요실상제  
 야우관슈를싱각함은아니라라황제듯지아니하시며왈하신은쇼위금석지신이요문  
 장이당세에압두하니국가에무쌍사라이갓든신하를히하면이거선총직현양한저에

길을막음이라하시니좌승상남과목이분발하야알상고간왈병부상셔의말씀이총연  
 증직하나이다하되황제종불총지하시난지라집에도라와분심이디발하야밤에관목  
 관원이하신이히할마음과불칙한계교를싱각하교상의하나관원왈이제황제하신을  
 총의함파밋의심이극진한지라만약하신에베사리점々넙히병권을잡은즉그승품이  
 증직하교아등으로더부러구슈간이라아등이저의게죽기를면치못하리니등을교  
 통하야중국에들어오게하야등이에심을빌어하신을먼저읍시하교추후로호작구처  
 합이엇다하노관목이듯고디히하야왈너마음과갓도다하교잇튼날글을등이에보너  
 여너응함을말하니등이항상이마음이잇스나여의치못하야강병슈천과히군슈천을  
 동호상에두고잇더니맛참관목관원이셔간을보고디히하야진금보피를보너니양인  
 이희심이과망하야명런지를등이와등모하교저하더라

각절던하승평하교과셔이풍등하니황제빅관을티평당에모되우시고디연을비설하  
 시니만민이오락하교빅국이사복하난지라황제던안에희석을피시고왈진한지치란  
 과문상무상을말씀하시며문경무하에이르려양타부가의가이십여세에문장이평디  
 한지라디천하시고제신을도라보사왈차중에누가가의와갓치문장이잇느뇨하신디  
 제신이키불능당이로되한림학사하신이출반슈왈쇼신이황공하오나감이비교하겠  
 나이다황제상을치시며왈하신이아니면슈능당지리요그러나가의를디신하야희문

황제에 올린 서를 불알니로 지어 올니라 하신 이 비명 하 고 북지 휘 필 이 서 하 와 올  
 니 오니 황제 보시고 디 찬 하 사 왈 고 가 의 금 가 의 로 다 하시고 곳 티 저 티 부 를 비 하 시 고 겸  
 하야 예 부 상 서 를 하 이 시 니 디 외 영 광 이 극 진 하 며 고 금 에 희 한 함 이 러 라 신 이 사 은 속 비  
 하 고 회 하 여 집 에 도 라 오 니 강 낭 이 김 부 말 이 기 지 못 야 부 응 을 칭 각 하 고 낙 루 하 더 라 관  
 원 관 녹 양 인 은 마 음 이 불 편 하 야 하 신 이 보 기 를 구 슈 와 又 처 하 야 동 조 하 기 를 참 꾀 이 성  
 각 하 고 후 총 병 부 조 하 더 니 하 날 리 디 명 을 도 라 보 시 지 아 니 하 던 지 국 운 이 비 식 하 던 지  
 황 제 우 연 득 병 호 사 봉 호 시 고 근 문 제 즉 위 하 시 니 제 실 이 미 약 하 고 조 정 에 간 신 이 병 전  
 을 희 롱 하 야 관 목 관 원 이 득 의 추 를 당 하 야 마 음 이 활 발 하 며 북 방 에 군 사 디 고 하 며 연 병  
 이 침 노 하 니 상 이 날 로 근 심 하 사 좌 승 상 남 관 녹 과 병 부 상 서 리 관 원 으 로 상 의 하 시 니 가  
 련 하 도 다 이 一 키 아 지 를 가 저 법 에 입 에 던 지 미 요 불 흥 즈 에 게 주 셔 을 말 함 이 라 양 인 이  
 희 불 자 승 하 야 북 지 주 왈 티 조 황 제 예 부 상 서 하 신 을 극 진 이 총 의 하 심 은 그 재 조 를 미 들  
 이 라 하 신 이 비 록 년 소 하 오 나 문 무 지 재 를 겸 하 여 씨 니 하 신 으 로 히 야 금 연 병 을 치 게 하  
 시 고 쇼 신 등 이 비 록 무 재 하 오 는 북 방 병 을 처 파 하 겠 나 이 다 상 이 들 으 시 고 디 희 하 사 곳  
 예 부 상 서 하 신 으 로 히 야 금 정 남 티 장 군 디 사 마 디 도 독 겸 연 남 순 무 사 를 비 하 시 고 근 사  
 오 만 을 주 시 니 일 조 에 위 의 도 엄 속 하 며 영 꾀 함 도 장 하 도 다 이 뉘 에 심 잇 고 관 녹 관 원 양  
 인 에 심 이 라 디 저 사 팀 이 남 을 희 一 할 칭 각 이 잇 시 면 그 사 람 을 천 근 이 하 고 영 꾀 하 게 할

은 중 한 이 처 라 이 변 하 신 이 대 사 마 대 도 독 이 되 여 연 국 을 치 게 함 은 하 신 이 변 리 무 재 가  
 읍 고 다 만 문 신 이 라 연 국 심 을 빌 어 죽 이 게 함 이 라 상 이 또 훈 남 관 목 으 로 히 야 금 정 북 대  
 장 군 슈 군 절 도 사 를 비 하 시 니 근 사 오 만 이 라 관 목 이 불 열 하 야 말 정 치 아 니 하 난 지 라 관  
 원 이 종 용 고 왕 복 방 병 이 대 승 하 오 니 승 삭 관 목 이 비 록 순 오 에 재 조 와 양 평 에 지 해 가 잇  
 스 나 당 처 못 할 거 시 요 또 한 관 목 이 방 금 승 상 으 로 출 전 하 난 대 원 응 을 비 하 지 아 니 하 시  
 니 디 신 을 디 접 지 아 니 함 이 요 하 신 은 일 키 문 사 로 되 티 사 마 디 도 독 을 비 하 시 니 이 난 공  
 사 불 편 하 음 이 라 황 상 은 김 히 칭 각 하 사 도 적 을 속 기 꾀 하 게 하 쇼 사 상 이 듯 고 후 회 마 심  
 하 사 곳 그 말 을 쓰 처 관 목 으 로 원 응 을 봉 호 시 고 부 월 을 주 시 며 알 병 법 을 어 기 난 지 잇 시  
 면 선 참 후 계 하 라 하 시 니 그 제 야 락 은 을 비 사 하 고 티 일 발 정 하 니 라 잇 썩 티 사 마 말 정 하  
 야 연 국 을 바 라 고 칭 하 더 니 도 처 의 유 현 국 도 적 에 게 죽 어 다 잡 꾀 여 갓 다 하 난 쇼 리 민 심  
 이 흥 하 고 디 구 나 연 병 이 침 노 하 고 북 병 이 디 말 하 디 민 불 안 돈 하 고 사 산 분 주 하 야 전  
 우 구 학 하 난 지 부 지 기 슈 러 라 티 사 마 이 그 동 을 보 고 장 탄 불 리 하 야 왈 안 으 로 티 여 가 작  
 난 하 고 박 그 로 도 적 이 디 말 하 니 차 장 닐 하 오 하 며 락 누 하 니 근 사 가 보 고 비 참 치 아 니 하  
 난 지 음 더 라 일 사 은 관 막 을 치 고 쉬 을 서 대 사 마 상 전 월 하 에 인 심 이 요 란 할 과 적 병 의 감  
 승 함 을 칭 각 하 디 심 사 살 난 하 야 병 서 를 보 다 가 잠 간 조 으 더 니 디 조 황 제 락 관 을 거 느 리  
 시 고 오 셔 사 군 중 을 살 펴 보 시 고 왈 하 신 이 문 장 만 잇 고 무 지 난 읍 난 줄 알 어 더 니 지금 보

니 문무지지를 겸하였도다 연이나 별다른 조읍시니 연국을 장차 웃지프고며 연을 포  
 호노또 웃지난 신을 쇼멸호며 동이를 물니 칠고 명국사적 북을 자는 하신이라 하신은 총  
 성이 지구호도 다 그 총성은 지극하니와 그 조읍심이 가척이로다 호시며 눈물을 흘  
 니여 용포를 셔시우시니 디사마 황송무지호야 북지양던 탄식호다가 써니 남가 일몽이  
 라 면상을 만지여 보니 눈물흔적이 잇난지라 목욕지비호고 하날을 향호야 사비 암축하  
 니 구름이 참담하고 월석이 외희한디 정성이사 못치고 신령이 강림호신듯하더라 밤을  
 살어저보니고잇튼날 호야 밤을 쉬을시오 경초에 월벽이 두흔디 비몽사몽간에  
 일위선관이 백운을 타고 공중에 잇다가 나리여와 디사마에게 읍하고 알면 인은 다른사  
 람이 아니오라 티조황제를 피시고 잇난 사람이 읍더니 티조황제 압셔 명나라에 사방  
 도적이 강승호고 안으로 간악요마가 디치하야 황실이 미약하며 민심이 요란함을 주야  
 근심하사 옥제 누하히 상달하시외 일권셔 책을으디사마게 보니노니 사마난 명심하  
 야보시고 명실을 붓들고 디어를 쇼멸호고 적국을 쳐포하시고 난신을 제이하시고 인군  
 을 마저 세우고 공훈을 죽벌에 전하쇼셔호며 표연이 송천하난지라 사마늘 디쳐니 모골  
 이 송연호야 살피여보니 파년셔척 일권이 압해노이여 난디셔 두에대조로 천상단셔라  
 호야 거날 심상치아니하야 향터 죽슈하고 분히 단좌하고 보오니 현호묘호지 술과 증호  
 명호한이치가 잇난디요마 쇼멸법이 잇씨디 자세히 보니 그주에 하여씨되 위국지대장

저민신을 살피여 불지니 요마가 경디에 디치하니 디어를 웃지제어치아니하고 하필에  
 먼적국을 근심하야 먼저차리요이난근번을노코그 뜻설다사리미라 하얏고련문리디  
 위둔갑축디저법이 잇시니사마싱각하디심상한셔척 썩아니라 티조황제에서 보니심  
 이분명한지라 심성을 다하여속독하니 번셔파인한총명과 출천저에로웃지지식이광  
 활치아니하리요그잇튼날 평명에 군중에 호령알고치를 갖추우고 천악산으로인도하  
 라하니 군사총령하고위의를 엄속키하고 고각을올니며 천악산에 당도하니 봉만은고  
 할가척의 쇼사반공에잇고 초목은긔치 창검을죽체령하난듯한곳에다호르니셔문  
 이구지다호난지라사마겉을들어동남을가라쳐며이십팔슈를응하야 육경육갑을의  
 우고한번치니셔문이편호포쇄하난지라군사보고그제야사마의지조를 탄복하더라  
 사마중군을불너왈니혈중에 들어가요마를한칼에쇼멸하고갓천벽성을니오리니그  
 디통은항호를일치말고기달이라하며나무입시를싸부셔를부치고군사슈턱을다리  
 고입시를타고들어가니군사경복지아니하난지읍더라사마입시를타고순식간에  
 리여가사방을살피여보니산천과일월이명량하고회여한지라유현국도를차자가니  
 궁궐제도가의여경사라천상단셔를펼쳐들고완호이들이가할성한번벽역갓치지르  
 니맛참유현왕이잇난지라불의에쇼리를듯고디경하야팔만귀졸을호령하야잡으라  
 하니팔만귀졸이일시에너달어에위싸거날사마한번단셔진언을의우고사방을가라

마며부셔를던지니 팔만키졸이 슈족을 요동치 못하난지라 유현왕이 당상에 안저싸가  
 이거동을보고되경하야요사함을베푸러호풍환우하고팔만키졸을다시살이여니  
 그지조칭양치못할지라사마츠음에난살히지법을헝치아니하야더니그동정을보미  
 심상치아니흔지라그제야등운신장을불니쇼멸부를사방으로부치고칼을들어공중  
 에던지니검광이홀년이립설이분々하야사방에떨어지니괴묘하도다팔만키졸이삼  
 시간에다읍셔지되유현왕이라총하난자논기저잇난지라사마피이예기여칼을들고  
 당상으로달아든니형용을부디하여싸나사디를요동치못하난등신썩이라그제야사  
 방부셔를거두우고인간에잡피여온사람을차질식이떡홀년이궁중에츠하야우년이  
 근너방을살피보니척합한개잇난지라자세히보니장이십척이요광이오척반이라  
 년구세적하야광치난읍시되영롱한괴운과은々한괴는용궁조화아니면천상괴보  
 러라이상도하야자세히보니금조삭이여싸되모월모일에되명국되사마되도  
 독하신이정남할제개탁이라하여거날보고되경되희하야싱각하되금일이곳개탁할  
 날리요하신씨논엇더한스름잇고혹시우리한림이디스마되도독이되시여연을치러  
 가시나참아치지못할바는사람의전정이로다이웃지한일릿고의아불이하야지너더  
 니불의에되명장이왔다하고슈시간풍운중으로첩전이분々하더니유현국군졸팔만  
 키졸이삼시간에비거셔양풍하고쇼위유현왕이라하난거선불사동신만당상에잇는

지라홀년이일월이명낭하더니엇더한일원티장이머리에황금투구를써고몸에적로  
 금갑을입어씨니얼골은관옥이요눈썹은죽엽이라한손에한척권을잡고한손에난디  
 검을들고사방으로살피여보며홀년이잇는궁중으로들어오니풍신도장할시고위의  
 도엄숙하다일변반갑기도하고일변겁도나느디자세히보니갈썩읍난오미불망하던  
 한림학사하신이가분명하다디개반갑고도흔일을당하면중정이막키여말을이루  
 지못하고먼저눈물이압서난법이라우한이보다가아무말읍시쌍에겨구러저등  
 곡할다름이라사마의아하야음성을듯고안색을보니복색은다르나갈썩읍난영  
 낙이아니면송낙(총의)하며정각하는홀년이라마음이쾌할두눈이강감아무란졸모  
 르고손으로몸만직신々々정신차리여니가지금와시니놀너지마라홀년이을마썩  
 을다가계우정신을차려여다시복지돈수하고왈장군이웃지하신일리시니싸하늘로  
 서너리여오셨나닛가촌년이죽어구천에도라가키신에게속어이리하나키신에게시  
 달니기도만이하엿지만지금당하야는진위를아지못할리로다사마그모양을보미정  
 신을차리지못하난지라갈을노코홀년의손을잡어각가이안지며만단설화하니그제  
 야홀년이참인줄알고다시눈물리비오덧하며심중사를담화하니죽어던사람을황천  
 에만남이요산사탑이황천에들어감이러라그간이별한말과그간지너던일을말하면  
 장황분주한지라제폐하고관수에쇼식을말하고들으미가위장탄일장이러라일변인

간에 잡피여온 사람을 뒤노으니 일등미색여즈가 일천오백여인이라 금은보좌를 다나  
 누어 주니 다 겁버하야 사마에 은덕을 빅비감사 하되 한여즈가 나 이난이 심가 략쯔되얏  
 며 눈물을 흘이니 사마그마음을 보고 자년 사랑한 생각이나 서문알너는 웃더한디즈  
 완디 밧지아니하는 뇨그여즈공손이 뒤왈츠너는 한단사압더니 철세에 부모구물하오  
 매갈바를아지 못하와 당고모집에가의 지하여삼더니 당고모 별세하고 자연가세가 불  
 섬하오매 츠녀를 하단도포에게 팔은바 되여 약간글즈를 비우고가 무을공부하와 한단  
 청루에제일방치가되얏삼더니 불의에 유현국에잡피여와 참아죽지안못하옵고구차  
 투싱하오미일각이여숨추러니 장군에헤턱을임스와스재부싱하오니그은덕이산고  
 히심이라심분지일이나갑를바를아지 못하압디되리여금은을밧는게의리에불가  
 할썌아니라이 무도막심한악덕여가도취흔물건을밧는거시 무어시 당년하리요일  
 로써밧지아니하겠느이다스마들으매그말이가장의리가잇난지라다시문왈하리요일  
 명이 무어시 뇨그녀즈답왈츠승은유요명은백난이로쇼이다사마 사랑한싱각은고  
 스하고척은훈마음이잇셔참아떠나지 못하고슈작이장황흔지라잇썌홍년이 열해잇  
 서그수작하난동정을보매가장지리할썌아니라양인에심스가상합할듯훈모양이라  
 시그하느모음이잇난거시아니라그셔할스견에대하야조급훈마음이잇난지라황망

고왈방금이상하은물건이잇씨니사마는기탁하시외보소서기탁할날도곳금일이니  
 참기이한바로소이다하며사마를되시고셔함잇는궁중으로들어가니사마웃지한곡  
 절을아지 못하고쌀아들어가셔함을보니심상치아니한물건이라암스축슈하고기탁  
 하니그안에금척한키와옥장한키가잇스니용궁조화분명하다홍년을보고왈이건곳  
 네에물건이라밧비슈습하야출혈하자하니홍년이고스하야왈금척은너즈에취할바  
 요옥장은남즈에취할바라각스취함이조흔듯하외다하며옥장은사마에게드리고금  
 척은자기가취한바되니라사마유현국디여를소멸하고나 무가지저스름슈효디  
 로입시를가져부서를부치고태우어출혈하니중군이군스를다리고영접하니게우반  
 일이되얏더라사마혈중으로니은스름을다일스히집을차자보이니다소제인이사마  
 에은덕을못히하례왈이번우리사마출군하시미전필승공필취하시외디평세게에만  
 슈무강하소서하며다제집을헹하야가되지설벽난이올기를마지아니하며왈타인은  
 집이잇시니가건아와나갓튼스름은집도척척도읍시니어디로가리요하야동곡일장  
 에만군이비참흔듯하더라홍년이스마에게고왈벽년에고동을보오미척은지심은인  
 개유지니웃지창년치아니하리요소침과갓치경스로올나가강방을되시고사마에  
 성공반스하음을기달이겟나이다한디사마별셔이마암이읍는건아니지만홍년에  
 동정을아지 못하야주저스스하얏더니디열허락하고유현국천연유를괴록하야화상

제을니고곳흥년과벽난을치송하야보니고발군하야행할시도처의사모에공덕을의  
 우어명여춘되하니민심이자못진정되얏더라이썩연왕이명국되사모유현국을반일  
 에소멸하고온다함을듯고근심이자발하야되소제장을모되우고의론하니되장군가  
 들뢰가출쥬왕구싱유취지아를웃지근심하나익가소장이비록무지하오나선봉장천  
 룡으로병심동역하야명스모하신에목을배히되왕전에박치리이다연왕이되희하야  
 술습잔을권하며왕성스논지천이언이와모스논지언이라성불성은장군두스름손에  
 잇스니심을다하고지혜를너여천하를으든즉천하를반분하야반은너가차지하고반  
 은론야장군두스람을주리니충성을다하라하며점々처들어갈시이썩사모남경의이  
 르리결척하고연왕과할계교를싱각하야현상단서를보더니욕장쓰는법이잇는지라  
 되희하야속독재슴에무불동지하고희불자승하야지너더니군스보하되발셔연군이  
 삼십리박게왔나이다하거늘장도에올너바라보니창검이셔리갓고고각이진현하야  
 군스철십만과명장삼천여원이향오를일치아니하고풍우갓치오는타위의심히엄숙  
 할지라니심으로근심이적지아니하나호령하야왕군중이요동치말나하고잇더니연  
 군이십리박게결척하고겨셔를보너여씨되언어가심히불공할뿐아니라명일평명에  
 상전하야승피를결하야하얏거늘스마보고분심이되발하나식로하고중군을불너왈  
 명일에도적이와셔도전할거시너부되군문을구지닷고나지아니하면그중에홀도리

잇스리니그되등은군법을어긋지말나군사총령하고웃지하는계척을아지못하더라  
 그잇은날연군이군문을동기하고선봉마천룡이우수에삼백근철퇴를들고좌수에수  
 괴를두루며합성을벽역갓치르며마상에넉히안저의괴양々하며위풍이능々한지  
 라명진중에군문을구지닷고접응치아니하니천룡이더욱괴승하야싸움을도々우되  
 종시나지아니하니군사로히야금질욕을무수히하되안돈불출하니연진중에서말하  
 되명장이겁닌다하고가만이승야음습하기를썩하야군사로질욕도하며담지도하니  
 사마웃지물을소나짐자하고방척할계교를준비하니딘소위적수상봉이라사마군사  
 로히야금초기를가져히인을지여군중에두고좌부선봉최갑용을불너군사습천을주  
 며왈남으로사십리를나가미복하얏다가금야슴경에수목의불을지르고동으로이십  
 니를즉쥬하야도적에양식길을막고적군이닷거든엄살하라하고우선봉리성벽을불  
 너군사습천을쥬며왈금야슴경에북으로이십리를나가산곡사에미복하얏다가도  
 적이되피하야닷거든엄살하야닷지못하얏고하얏고중군장유천송을불너왈그되는  
 군사일만오천을쥬노니셔으로십니을나가미복하얏다가번군중에서화광이충천하  
 거든적진을쳐들어가되명국괴를세우고위풍을진동하야고각을올니고잇다가그형  
 세를쫓쳐응접하라하고후군장마담을불너왕군사사천을쥬노니셔남간으로습십니  
 를나가미복하얏다가금야슴경에사방화광을쫓쳐화광을충천하게하야도적이닷지

호 상 몽

못하게 하라 하고 친이 군사이 만오천을 거나리고 군중에 약속한 야변진중에 초기토지  
 은허인을 두고 초경에 가만이 후복문을 열고 잠출하여 변진사방에 미복하이 고연군오  
 기를기달이더니 과연승경에 연군이 북지잠출하여와 엄습하니 진문이 닫쳐어난디진  
 중에 군사만이잇스나 요동치아니하고 등축이 휘황한지라 연군의 의심하여들어가지  
 못하니 선봉마천등이 변진에기별하여 군사철십만을다모라들어가니 명진중에강슈  
 가살년듯산악이문어지는듯진중을헤치고들어가본즉명진장졸은하나도볼슈읍고  
 다만허인뿐이라묘계에빠진줄알고곳환군하라할차의공중으로벽역가튼소리나며  
 사방에미복한군사별때갓치이러나며일시화광이디발하여연열이축비총복하며침  
 사암야가빅쥬와갓치명낭하며창검이서리갓고시척이비오듯하니연군이흔비빅산  
 향야웃지할바를아지못하고공중쇼리나는디를바라보니웃더한일원디장이일신단  
 검으로옥장을집고공중에셔々오여왈나는달은사람이안이라디명국디사마디도독  
 정남디장군하신이라황상에던명을받자와천리출전하미유현디어를반일에소멸하  
 고연왕이불순무도함을못고자하여여기결전하고잇난지사오일이로되항복지아니  
 하고군사로하여금질욕이무수하며서찰이불공막디하며또흔밤을타서던병을음습  
 하라하니이갓치무도함이어디잇시리요내웃지용서할소나연왕은들으라철십만군  
 졸에잔명을의세여항복한즉용서하러니와항복지아니한즉함몰함을면치못하리라

호 상 몽

군사간이녹듯모골이송연하여웃지할바를모르되선봉천등은본디성품이강々하  
 고용망이과인하여천인이당치못하고한번연즉강을근너고잔을넘년지라분심이디  
 발하여필마단창으로몸을소수워공중으로올나갈을들어서마를치니슴틱근철포가  
 사방으로빛나며여산디호갓치소리를벽역갓치지르며달아든니사마옥장으로한번  
 천등에투구를치니투구쳐여저마하에찌러지난지라천등이분기팅던하여투구를주  
 워사마에투구를치니사마에투구거의버셔질번한지라사마또흔분심을참지못하여  
 갈을거두우고옥장으로출츄며공중에던지니유현국셔함중에어든옥장조화그웃더  
 한고금야에시현중이로다옥장이화하여청용이되어수염을거사리고썸리를치며천  
 동에개달아드니천등이흔겁하여쌍에떠려저죽는지라가돌쇠분기팅던하여군사로  
 히야금공중을쏘라하고갈을들어몸을소서사마에개달아드니괴운이밍열하고검법  
 이심상치안이한지라사마갈을들어사방을가라쳐연상단서던언을베풀으니금광이  
 변하여빅설이분々하여돌쇠일신이금광중에잇는지라돌쇠정신을가다드무며괴운  
 을일치아니하고금법이조금도변치아니하니사마그지용을사랑하여갈을거두우고  
 옥장을잡어돌쇠를가라쳐왈그되는졸쉬우고내에말을들을지어다한디돌쇠갈을집  
 고셔々사마를향하여말을듯고자하는지라사마옥장을두루며왈그디에지약과갈씨  
 논법을보미심히심상치아니한지라비록지용이잇스나오리나를그역지못할거

시요키슈치아니하면옥장에조화로신명을보전치못할거시니그디는부지럽시심을  
 허비치말고런의를순종하라하니돌쇠분기를참지못하여갈을들어치고자하니사마  
 옥장으로막어왈그디을지금갓치히하지아니함은이옥장이번디살명을조와아니하  
 며내역시던명을밧들어불순한죄를문난지라악가마천동은용역이잇시나중정이히  
 하여자겁하여죽은바라나을원망치말고키슈치를바라노라만약불연한경우에는  
 옥장을바드라하니돌쇠달아들어옥장을치라한디사마그죄조를보라하여옥장을흔  
 들어사방을군사로접々이에위싸며화광을충천하게고고각을올이며시색이여류  
 하여사방으로엄살하게하고옥장이화하여청용이되여운우를지으며입을쥬홍갓치  
 벌이고돌쇠에게로달아드니돌쇠조금도겁내지아니하고갈을들어청용을막으며  
 운이종시여일하거날사마옥장을거두니돌쇠번군을내리여다보니사방에화광이점  
 々충천하며고각함성은런지진동하고금구시색이나열하니철만군졸이웃지할바를  
 모르고서루발바죽난제부지기수라사마을바리고번진중에내리여가연왕과장졸을  
 다리고번진을향하여가거날접々히싸인군사돌쇠에날닐갈을바더신명을부치니그  
 형세밍호출림이라사마옥장을집고공중에서보니그지용이괴묘흔지라옥장을들어  
 군사를나누워연군에갈을막지아니하게하니돌쇠뒤편을드리고명진을버서져번딘  
 에들어가라하니불시의명졸이내달아치거날디경하여살림보니디명기를세우고양

초를달취하얏난지라하릴읍서남을바라보미화광이충천한지라남으로가지못하고  
 북으로향하여이십니를나가니산노가심히 흉악한지라북병이잇슬가염여하야나  
 가지못하고군사로히야금담지하니과연북병이내달아엄살하난지라돌쇠양던탄식  
 하드가분심을참지못하여필마단창으로명군슈빅을한갈에죽이니리성빅이디적하  
 야슈십여합의당치못하고달아날시중군장유천송이적딘을달취하고연군이북으로  
 가멀알고군사를드리고오난지라돌쇠마저싸와심여합에성빅이갈을들고협공하난  
 지라돌쇠능히적하며서북간으로갈시화광이점々이러나고고각이진동하난디습  
 십니을못가마담이군사를드리고갈을막난지라돌쇠사마에디모용역을탄복하야그  
 썩에싸진줄알지라사방에미복한군사잇고군사게우철만이라하릴읍서자문코저하  
 다가홀년이싱각하미엿적도맹덕은화룡도좁은길의관공을만나살아나셔군사를발  
 하야다시동을치고촉한을엿보와싸나나도금야슴경의사방에미복한군사가잇고  
 화광이충던하야곤란이무수할뿐아니라진소위알모도궁하니인간이하세오동저비  
 야로다연이나명사마를보미거의죽이지아니할듯한지라내심을다하야버셔져나감  
 이올도다하고다시갈을들어연왕을피시고군사를거나리여동으로도망하니좌부선  
 몽최갑용이양식길을발서산코내달아호령하여알도적은닷지말라내에팔지창이사  
 정이읍난지라하며빅총마을모라나오니위풍이능々하고창빛치월식을회룡하난디

신장이 구척이 요얼골이 적도 빗치라 그 용역 잇슴을 알너라 한번 보미 법에 쟁리를 밧고  
 입을 만짐이라 하릴 읍서 칼을 들어 뒤적하니 쌍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난 듯 양호가 밥을  
 다투는 듯이 십여합의 승부를 결단치 못하더니 돌쇠 괴운이 쇠진하야 칼을 한번 실수하  
 미 갑용의 팔지창이 번듯하며 돌쇠에 가삼을 지르라 하더니 공중으로 서호연이 뒤호왈  
 좌부선봉 최갑용은 적장을 허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하거날 갑용이 창을 멈추고 바라  
 보니 뒤사마 옥장을 잡고 공중에서 서 돌쇠를 삼시간의 성금하니 갑용이 분년이 사마에  
 게고왈 사마는 소장에 심을 밧어 소장에 공을 쟈앗는 다하야 창을 들어 돌쇠를 치라 하난  
 지라 사마 미소하고 갑용을 말니 여왈 그 뒤에 용역은 너가 아난 바라 무어 설근심하리 요  
 살지 불상이라 하니 갑용이 그 제야 창을 휘는 지라 사마 돌쇠를 다리고 번전에 도라오  
 니 연왕은 그 틈을 타서 도망하얏더라 사마 승전함은 뒤희치 아니하야 고적장으든 것을 뒤  
 열하야 돌쇠에 손을 잡아 당상으로 오르라 하니 돌쇠고사 불충하야 왈 너 지금 시운이 불  
 길하야 이 지경이 되야 쓰나 웃지 이 갓치 무례하리 요하야 위풍이 능하야 지라 사마 공경  
 하야 친이 쓸에 너려가 무례함을 사내하야 다시 당상에 안치고 주효를 나와 심히 관디하  
 니 돌쇠 처음에는 상음치 아니하다가 사마 지성으로 관디하미 돌쇠 자연 감복하야 주효  
 를 먹고 마암을 의논할 서사마 승퇴지술을 물으니 돌쇠 돈수사 왈 퇴군지장이 웃지하야  
 말씀하오며 또 호사마 난련신이 시라련신지전에 인간용부가 웃지알비잇시리 요사마

되리여 이 갓치 하오면 덩의 아니오라 하거날 사마 그 마암을 짐작하고 승퇴지술을 못지  
 아니하고 그 잇튼날 연국을 향할시 돌쇠 눈물을 흘니 여쭙지안이 하니 사마 돌쇠에 충심  
 을 탄복하야 왈 그 더난 넘어 제 단치 말나 더 명련디에 연왕이 역심을 두워던 명을 그역하  
 니 이 난용납지 못할 죄를 웃지 용서하리 요마는 장군에 지혜로 웃지 이 갓치 하나 노연왕  
 이 귀순하면 조금도 연국에 허를 보이 지 아니하야 고도라 갈싸름이라 무엇을 한하리 요 돌  
 쇠듯고 이러지 비왈 사마에 말씀을 듯자오니 참군자에 마암이라 연국이 사마를 만나 부  
 지하겟나 이 다하야 충찬하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사마 발군하야 연국에 들어갈시 이쎄  
 연왕이 일야지간의 피하야 선봉마 천등을 죽이고 디장군가 돌쇠를 일코 칠십만군졸이  
 성산수류한지라 오즉 돌쇠에 마암을 알어 비록 잡피여 갓치 나반다시 도라오리라 하고  
 군사를 취집하니 또 호이 십오육천명이 라 주야로 돌쇠도라오기를 바라더니 돌쇠는 안  
 이오고 명사마 군사를 모라 점々 들어오며 돌쇠에서 간이와 거달기 탁하여 보니 하야 씨  
 되

모년 모월 모일의 불충신가 돌쇠는 연왕전에 백비상언하느이다 소장이 무제 무용하  
 음고하날이 도라보시지 안이 하사 일야지간의 선봉마 천등을 일코 칠십만군이 운  
 비년산하온지라 연전수십여합에 소장이 필마 단창으로 괴운이 쇠진하고 시운이 비  
 석하와 같한번 실수하오미 최갑용에 날닌 창에 죽기를 면치 못하야 삼더니 명사마 하

몽 상 호

신이 옥장을 들어 갑용을 막고 소장을 삼시간의 성금호오니 소장이 잡히니 되어 명진  
 에 가오미명사마조금도 홀디치아니호고 판디호기을마지아니호난지라 그의 리이  
 슴으로 귀항호오미씨로 디왕을 칭각호오니 송한이 등에 젖저 몸들 곳을 아지 못호나  
 이다 명사마이 제 디 병을 거나 리고 들어 가미 연국이 당치 못할지라 디왕이 귀순호심  
 을기 달이 옴이 요전 멸치아니 하고 자하 옴이라 디왕은 김히 칭각호시와 속히 귀순호  
 시고 연국익성에 성명을 도라보 시압소서 또 홀디왕께셔도 하량호시는 바어니와 명  
 사마 하신은 언신이 요그마암이 현안군조이라 항거 불리호오니 십분 최량호소서 쇼  
 장이 비록 투항호얏사오나 웃지고 국을 칭각지아니호리 요남련을 바라매 슈운이 첩  
 호호고 작동이 노호호야고안이 남비호오매 단서를 상달호오니 무장금이 탄지호고  
 의 잔귀이 압지호오니 흥격이여 열호오며 체루방라호야알외을 곳을 아압지 못호오  
 니 천만도량하쇼셔 성황성공하노이다

연왕이 보기를 다호미 누슈자령호야 용포를 쟈시는 지라 두말안이 하고 항복하기를 일  
 습씨라이씨명사마연국익니의 들어가 유진호고 연왕에 동정을 살피더니 참연왕에  
 사신이 서간을가지고와셔올니며야모날 연왕이 항복하기로 작정호고 먼저 서간을 올  
 니여 구호한 정성을 표하노이다 호거날사마 김버호야 연국사신을 후디하야 보니고 돌  
 죄를 불너보인디 돌죄일희일비하야고왈 연왕이 당초의 불순한호음을 돕은 천동소장

몽 상 호

의 말을 듯고 하옵이라이제 천통은 황천에 도라가고 소장은 명딘에 잡피여 온지라 칭각  
 하압건디 연왕이 반다시 항복하오리니사마는 의심치호압소서사마 뜻고 디희호야 군  
 사를 유진호고 연왕 항복할 날을기 달이더니과년그날의 연왕이 디소제신을 거나 리고  
 군사슈익과 소거익마로 명진군문압해너리거날사마 급히 쟈에너리여 연왕을 보고 예  
 하니 연왕이 돈슈익비하거날사마 연왕을마저 당상에 안치고 왕에 예로 접디호니 연왕  
 이과만하야사마를 보고 황송무디호야 일후다시 불칙한마암을 두지안이호기로 밍세  
 호며 후회막대호야 웃지할바를아지 못호야 돌죄잇는 곳을 못난지라사마 손을들어 연  
 왕에 등뒤를가라치며 안식이 불편호거날 연왕이 곡절을아지 못호고도라보니 돌죄갑  
 두를 받은 벗고 눈물만 흘니고 섰는지라 연왕이 보고서 루눈물만 흘닐다름이라사마 왈  
 군신지의에 불가무예니 돌죄난 연왕전에 죄일지어다 돌죄그제야 연왕전의 비복호야  
 통곡호미 연왕이 또호유체답에하니 일군중이 보고비참치안이 할지 읊더라 연왕이 다  
 시읍고 왈 죄사무척으로 또이갓치 무례하오니사마는 심분용셔호소서사마 왈 대왕은  
 넘어그리말고잇시라호고 군중에 호령호야 그치를나열호고 창금을 엄속히호며 연  
 왕을보고 왈 대명던디에 연국이 변방소국으로 항거 불순호야 민심을 소동호며 소위가  
 심히대역무도한지라 황상세압셔근심하사하신을보니여치라호시난지라 황명을 밧  
 자와련병을 거나 리고 유현대여를 반일의 소멸호고 발군호야 대왕으로더부러 결척한

지오리되종시귀순치아니하고절육이무수하니이갓치무도함이대명던지에잇시리  
 요한대연왕이고두빅빅하며잔명을비는지라사마왕연왕에죄난즉지아나나이가  
 차의결호니다시연왕을봉하여연국부귀를누리게호리니대왕은진심갈여호야우으  
 로황제를성기고아리로빅성을다시리여자손손이연국부귀를누리여단심을다호  
 소서연왕이고두사는하거날돌쇠또함복디비사호기를마지아니호더라연왕이지성  
 으로의결호야알사마를피쳐연경으로도라가수일유식호기를청원호니사마연왕으  
 로한가지연경에들어가살피여보매산천이명낭호고물석이화려호지라니심으로호  
 션호기를마지안이호고궁중에들어가보니궁궐제도가또한찰는하야경사에비할너  
 라연왕이대년을비설호고가주미호를나오며호음미식으로사마에마암을절겁게호  
 며던은을감축호야사마를만호후로순식간의불순한마암을바리고현인군주에마암  
 을조처현주명군이되얏더라사마군사를일호히상주고유식호며연국을처항복받고  
 연국대장가돌쇠를싱금호야그디모도약이잇슴으로군중에두어씨니황상은연왕과  
 들쇠에죄를사호시고연왕은연왕에봉작을주시고돌쇠는관작을너리사국사를막지  
 말으소서일로연유를상달호니상이보시고대희호사왕대사마하신이유현대여를반  
 일에소멸호고연국을쳐수일지간의파호야연왕을항복받고적장가돌쇠를싱금호여  
 씨니이난병선이라호시고의사를보니사특별이초람왕을봉하시니식음이이천여호

요디방이리천여리라아직초람에나가지말고왕호만총상호야그대훈을상주는표를  
 하이시고아직은십삼성도의스를비하사성주에정치척지못함과민심에쇼요를암찰  
 진정호고북병이강승호니곳군사를먼저보며후일을기달니여반사하라호시고연  
 왕은경에말대로연왕을봉호고호장가돌쇠난좌부선봉장을비호고기타제장은일호  
 이관작을사급하시호초람왕에부친하유로초람왕노야왕을봉하시호왕부인은초람  
 노야리후를봉하시호초람왕부인강씨로초람왕비를봉하시호호년으로호열부인을  
 봉호시니하문의영키함이만고에초음이요일도의지극한지라이씨리관원이마참득  
 병십여일에오리입조치아니하얏더니상이관원에게문의치안이호고자작하신바라  
 관원이원리초람왕으로원슈갓치너다가가갓치영키함을듯고분을하기를마지안  
 이호야원중남관목에기별하야홍계를도모호며상을더욱공경치아니하니그홍계웃  
 더호고원중남관목이발군하야북병을칠석북군대장도밍봉이군사슴심만을거나리  
 고상접하야팔십여합의불분승부러라맹봉은번시지양이잇고용역이과인하야일빅  
 팔십근장창을씨며대만호준마를타시니일순간의천리를행하는지라명군를대적하  
 디경홀치아니할지라결진호고잇서명군에동정을살피더라관목은원리신이역사요  
 니약이잇난지라그죄조를밋고초람왕하신을연국에심을벌어죽이고자그난북병을  
 교전호야승패를결치안이하고리관위과교동호야황상세고호고동이를블너구원을

청야복병을 파하고 연국은 비록 군사만으나 동이가 중국에 들어와 북병과 함을 들으  
면 감이 되져 지못할지니 되신을 연결 교통하야 황상을 니치고 락위를 도모하고 자함이  
러니 하신이 반일만에 유현디여를 소멸하고 연군으로 교전하야 슈일지간의 연왕을 호  
복받고 락공을 세우어 초람왕이 되고 심삼성도의사가 되야 성주에 손불손을 살피라 하  
고 하문일족이 영광을 누리니 진소위양호유환이 요인자 무적이라 썸흥성주희불초함  
은 다 관목 관원에 천척 비당이 라 만약 하신이 순찰하면 그 증직할마 암에 죽이 멀면 치못  
할 것이니 그 도근심이 되건이와 자기는 수월이 지나 되 일출지공을 세우지 못하니 슈  
치함이 즉지안이 하며 황상이 관원도 아지 못하게 천이 초치하심에 대하야 원한이 입골  
한지라 관원에 계동지함을 보고역시 일반이라 주야로 근심하야 북병과 기는 고사하고  
하신이 허하기를 일습어 음식이 불감하며 백사를 전폐하야 지니 더니 들으미 하신이 초  
람왕위를 밧고 심삼성도의사가 되야 곽환군치안이 하고 연국에 유딘하야 연왕으로 더  
부러날마다 락연을 배설하고 잇다 함을 들으미 흥계가 지저차산중이라 관원으로 허야  
금황상께 고하되 초람왕하신이 연국에 머물너 연왕으로 날미 다 락연을 비설하고 진기  
며 환군치안이 하니 이 난반다시 두마 암을 두음이라 썸흥 연국대장가 돌쇠는 일대영  
웅이라 명딘에 흥복한후로 춘공을 세우지 못하야 거날하신이 황상께 두달하야 관작을  
니리니 영웅을 사피며 연왕을 교로 하야 불칙한마 암을 두미라 황상은 일지기의 명을 니

리사군사를 파하게 하시고 하신을 죽이여 후일 대화가 읊게 하시고 연왕과 돌쇠를 다음  
시하사 불우지 환을 막으소서 하며 날로 고간이 무수하니 상이 들으신지 처음의 썸지저  
왈 초람왕하신은 번리 총성이 지극하고 문장이 과인하야 난신적자에 말을 입에 니지 안  
히 하며 이 번출전하미 디 훈을 세운지라 되리여 허하면 국법이 허이 하리니 다시 말하  
말나 하시니 관원이 수색이 만면하야 다시 기구치 못하 고 집에 도라와 생각하미 분입골  
수라 되신을 연결하야 다시고 간하니 만점 혹은 이 청던 백일을 가리난 듯상이 반신반의  
하야 의심이 자년싱겨 더라 일々は 연인호준영이라 하난 지잇셔 공부상셔 문상민을 보  
와 상에게 고하되 초람왕하신이 연왕으로 더 부러 교통하야 연국대장가 돌쇠로 허야 금  
선봉을 삼어 쳐들어 온다 하니 썸하시도 다상이 제신에게 물으니 되신이 일출여 구라 상  
이 그제야 승상 관원을 불러 상의 하시니 가동가 분이로 다 소인에 참소하 고 간교함으로  
감언이 설을 니음이 여자고로 암유가 소인에 말을 들으미 소인을 총신이라 하 고 총신을  
역신이라 하야 소인장중에 빠져 난법은 증한이 치라 시고로 인군이 인군되고 신하가 신  
하되기가 극난이라 하노라 상이 들으시고 락조를 니리스 즉 일군사를 파하고 아직요동  
으로 원찬하라 하시더라 사마 초람왕봉하 신칙교를 밧자와 락은을 비스하며 제장에 관  
작을 도명되 일々이 분비하 고 연왕에 칙지를 주니 락은이 망극하야 갑복하며 연왕이  
일번 락연을 비설하 고 초람왕에 은덕을 못니스 례하야 말류하며 노더니 일々は 의스 황

명을가지고와서군사를죽일과하고초람왕은아직요동으로원찬하라하니이엇  
 지호일인고기간연국익성이초람왕에덕화를입어총송이마지아니하더니이소문을  
 듯고서루분을향며참혹야략누치안이하는지읍더라초람왕이복디탄식야왕왕  
 위난원리분슈에지남이라포의한사로황상에덕택을입어조고마한공을세우며참남  
 히왕호를받자오니이는요동원찬이런리에맛당하온지라웃지황송치아니하며쪽금  
 이라도웃지황상을원역하리요글어하나소인에참소를들으시고하심으로히야금반  
 심을듣다하니이것은누명을면치못하고디하에도라간들리조황제를무순면목으로  
 보오리요하며누수령々야의상을적시우며쌍을쳐동곡하니그형용은참아보지못  
 할니라연왕과돌쇠면관돈슈야왕초람왕에이무죄흔투명을입어만리요동에원찬  
 하시오은다우리애죄라우리두스름에죄목을론슈하스먼저츠치하소서초람왕이왕  
 시호언야오년에죄요디왕과장군에죄난아니라아무썩투디왕은익성을다스리코잇  
 셔그형편을보소서이씩최감용이분년이고왕군중에난장군에령을듯고던저조셔  
 는듯지아니하다하오니이제디왕이슈월지간에티흔을세우스작일에초람왕을봉하  
 시고금일에파군고원찬하라하시니이난소인에참소를들으심이라먼저스신을베  
 이여군중의호령하시고군사를거나려경스의들이가도정에참소한쇼인의목을베어  
 원한을풀으쇼서또리성벽마다담유천송등제장이고왕쇼장등은장하에죽스와도군스

는과하지못하겠나이다도시좌승상겸원융남관목과병부상셔겸디스흔디승스리관  
 원이티왕을원슈와갓치야주야로히하고자하되도정에의론과익성의원역을무셔  
 위하야금일싸지형하지못하더니이씩승시하야이갓치하옵이니쇼장등은맛당이군  
 스를거라려경스에들어가리관원의목을한갈에베이고원융남관목을대갈에죽이고  
 북군을처파하야도라와황상을보이겟나이다하며분심을참지못하야갈을들어난간  
 을치니난간이살어지난지라초람왕이제장에그동을보고잠간미소하며작언왕군등  
 은분심을실지여다니가당초에십년등하에독서한스라무지함을무릅시고제장등에  
 심을입어공훈을세우어초람왕위를받자오니분슈에지남이라또한흥진비리와고진  
 감닌난던도지상년이라방금황상세압셔던스를보니스군스를파하고요동에원찬하  
 라하시는데군스를파하지아니하고제장등에말과갓치한죽참반심을두음이라금일  
 파군하고제장등은아직연국에잇서형세를보와유선함이을도다하니돌쇠고왕쇼장  
 은말슴알을슈읍스오나고셔에하엿시되쇼인지고는감여밀이라하여씨니불과슈왕  
 지간의반다시변고잇스오리니초람왕에지휘대로아직여기잇서좌관이형이가하도  
 다하니제장등이마지아니하야탄식할샤름이라잇씩초람왕노야부々와초람왕비강  
 씨부인과호열부인호년이초를왕이무단이요동만리에원찬한단말을듯고웃지분을  
 하며원통치아니하리요던디가망々하고강산이답々하야웃지할줄을아지못하더니

호인이 초름왕에서 간을 올리거날 반갑기도 하지 미참한 생각이 대발하여 일자 동쪽에  
 곡성이 낭자하니 이 석벽난이 초름왕의 은덕을 생각하니 강부인 호열부인에 지나지 아  
 니한지라 비참한 마음을 여제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마암을 진정치 못하고 노야 부자  
 강부인 호열부인을 위로하여 왈 옛적 유공갓트신승인도 관처에 참소를 만났고 만고승  
 인공부조도 진치지익을 당하스씨니 이제 초름왕께 압셔 무죄히쇼인에 참소를 만나원  
 찬하시니 미구에 청천에 구름이 끼이고 백일이 명날이 잇시리니 이갓치 웃지하시  
 리요 과도 하심이오라 진정하시와 초름왕의 서간을 보쇼셔 노야 부자와 장부인은 호흡  
 장단하기를 마지아나 하느니라 호열부인은 의안이 병々 한스름갓치 아무말이 읊시잇  
 고 벽난이 다시 정신을 수습하야 기탁하야 보고 들으니 하엿시되

불초조신은 글을 노친전에 올리나이다 불초조황은을 빛자와 요행이 초공을 세우미  
 려는 이 망극한지라던지 신명이 미워하시고 강산 초목이 마시하스이 번요동원찬을  
 밧자오니 분수에 맛당하온지라 북망노친은 불초조신을과도히 염여치마시고 괴력  
 을보중하스 청련일명할씩씩달이 신즉 불초조신이 비록 죄명을입스오나 자년발  
 명할날이잇스오리니 염여치마압시고 불초조성환고국하기를 달리시외 천만보  
 중하심을 북망々々이외다 하엿거날

노야 부자 듯고 더욱이 셔하는지라 호열부인이 비심을 여제하고 노야 부자와 강부인을

위로하야 진정하나 그 원통하고이 석함을 다 기록지 못할너라 초름왕이 하릴 읊셔요 동  
 을바라고 향할시 제장이 십니 박게나와 전별하고 심중스름의론하니 티산이 무겁지안  
 코황하가되 리여얏더라 돌쇠와 강용등이 죽기로 썬썬 처가고자하니 초름왕이 누차말  
 니되 초름왕은 만리요동에 원찬하시미고 고초 곤난이 무수할지라 쇼장등은 웃지편안  
 이잇서 포식난의로 지너리요하며 좃는지라 초름왕이 마지 못하야 동행하야 갈시갈스  
 록비회원어이강가일총이라이 석원용남관목은 북군으로 썬상전치아나고 초름  
 왕희하기를 썬하야과년 뜻과갓치요동만리에 원찬보너미마암이 쾌락한지라대희하  
 야또호부족하마암이잇서리관원에게고별하야적병이강승하야파하지못하겟다고  
 동이에구원청하기를 동고하얏더라관원이상제고왈북병이강승하야원용에심으  
 로써파하지못하다하오니동이에구원을청하야원용을도우어북병을파하게하시고  
 연을쳐연왕을베이여달은종친을세워던하를반석과갓치구게하쇼셔한대가련하도  
 다황상에말슴이여국스를경이다알아츠차하라하시니관목이스은숙비하고곳글을  
 동이에부치니동이대희하야군스오십만을조발하야쥬야를티도하야중국에들어오  
 니불상하다학성이여죽음이산갓고스시가편야하니 황상에원어이웃지읍시리요시  
 일은갈상고하는소리민간에진동하더라상이동이대장은방티형으로적북대장을비  
 하시고리관원으로로컬니군마를총무하게하며도정빅스를관섭하라하시니관원이련은

을비스호고문방디청을북방에보니여관목에후군이되여북명을치라호니디청이군  
 스를모라북명으로상전할시번시디청은심이역스요용맹이과인한지라맹봉으로써  
 상적호미진소위적수상봉이라철십여합에불분승부라남관목이북명을이희로써달  
 니여홍북한즉부키를일평성루리고또호명던즈를니치고던호를삼분호야천익년이  
 가도록서루상별치안이호고지니자호니도맹봉도징각호미디명이동이구원호야협  
 공호미북명이비록강승호나당치못할거시오오리그역호다가는죽어멀면치못할지  
 나그진위를아지못호야관목에게회답호니관목이장디에안저칼을들어견양에피를  
 가져망세호야북명을보이니맹봉이또호장대에안져보고확신대회호야또호맹서를  
 써서보니고곳군스를거나리고명진에가호북호니관목이당상에안치고술을나와권  
 호야왈도장군과남관목이웃지상봉이느지리요호며디청을청호야숨인이진일도록  
 담론장황호니일면이여구라도동성상응호고동유상종이라고명천즈니또철계교를  
 연구호니의론이분류호며가장비밀호더니황호의맹봉은번진으로도라가고관목은  
 디청과동야상의호미슴경이지나오경에달함을아지못호더라잇튼날상제글을을니  
 여북명을쳐대장조맹봉을호북바닷다호니상이보시고대회호스왈진소위원왕이로  
 다호시고관원을불니상의호여속기반스호라호시니관목이맹봉으로히야금중군장  
 을두어아적원방에유진호고맹봉은한가지경스로돌어가상의조치호자호고즉일반

스호야경스로들어갈시상이문무관목을거나리고심니박게나와영접호니구경호노  
 백성이구름모이듯호야노변에비북련락할시백성중혹노숙한스름은락누호며왈우  
 리초람왕이무죄히요동만리에원찬호야이갓치반스치못호고남원융만승전반스호  
 니일희일비로다호며디평가를불으지안이호니남관목이니심락지호미민심을웃지  
 못한지라분심이대발호야구경호는백성수백을죽이고경스로들어올시금은을죽여  
 백성으로히야금남원융이승전반스호시미백성이디평호고천호가편안호다호라호  
 니그씨나이씨나돈이라호면죽어도죽는체사라도사는체호는법이라일시에백성이  
 호가왈남원융이승전반스호시미천호디평호고국가무스호야백성이디평가를불으  
 니우리원융대々々손々손々히와후장상을핍절치말고국가무스호야백성이디평가를불으  
 목이그제야대회호야희색을면상에뜨우고왈와후이짜를황제이짜로키량함이웃디  
 한고호더라상이잇씨원융을영접호시라호고교외에나오스원융이승전반스호고원  
 노의무스히환군함을위로호시미관목이대장은군례로보인다호고마상에넙히안져  
 읊호여보이니웃지역적에마암인들이갓트리요무례무도함이후일날니천대서지나  
 지안이호도다상이이갓치무례함을보시고도아무마암이읍시관목으로한가지궁중  
 에들어가스즉일대연을비설호시고관목디청과조맹봉을위로호스관목으로진왕을  
 봉호시고슴천호를주시며맹봉으로선봉을비호시고디청으로대스마대도독수육군

을거나리여변방을직키게하시고산동성철십주를주위동으로하야금외지교를디  
 지니아직은국가를반석에둔듯후일염여가읍더라관목이딘왕이심중에부족다하야  
 관원과상의하야근문제황상즉위이후로병난이즉지아니하교상서가읍서던하가불  
 안하교창성이도탄중에잇다하교근문제를니치고자가되교자하야일하은  
 백관을모되오고대연을비설하교왕이북방지병을치군스하나도상치안이하교  
 북바다던하를박척지고의두미백성이날로히야금던즈를슴어부귀를루리게하니  
 가참아못할비라경등에마암에난엇더한고각각마암을말하라하니백관이하나도  
 그역지못하교다만당연하다하교그중관목관원에편당은딘국에상서잇셔딘왕으로  
 히야금던즈되리라하교비계를올니니관목이덕열하야즉일근문제를불너오라하디  
 갑용에형갑홍이와마담에아우마총이와유천송에아달유춘충등제인이분심을참지  
 못하야관을들고관목관원두사람을보고디호왕이무도막심한역적놈아디명던지에  
 황던이무섭지아니한야무위시부족하야역적이되고자하야죽기를자원하나노황상  
 에은덕을입어조정익신이관목에신하되기가원이나잇기치무도한역적이어디로갈  
 소나하며관목을치라하니티청밍봉두사람이관을들어마저싸와불과수합에갑홍등  
 이황천길을차지니가련하다조정익관이여관목에신하되기가원이아니라그위풍에  
 강포를잡하교모진성명을익기여그리함이라승상관원이관목을보고왕갑홍에중제

갑용과마총에형마담과유춘충에이비유천송이며하신에부하장이일하이하나도도  
 라오지아니하얏나니다하나관목이관원을보고왕하신은양호유환이라이놈이요동  
 만리에원찬하엿싸나니가승전반사하야던즈되얏다하면반다시그저잇지아니할거  
 시요부하장이천족죽음을한하야연왕과교동하교솔병이니하리니이장차웃지할고  
 관원이답왈디왕은염여치마소서하신이비록던상단을더신통한지조가잇고유  
 현국에옥장을으더공중에다나난법이잇싸나아직구성유취치야요죽하한문사라웃  
 지죽키근심하오릿가그러나근문제용열무지하교흔도극심하야나도아저못하게  
 하신으로초름왕을봉하교그이비하유는존가농부라노야왕을봉하며쇼위홍년이라  
 하난년은번시촌인이라유현철에들어가요악한망양에덥이되야거날중병자락하교  
 실절치아니하얏다하교여중호걸이라하야호열부인을봉하니이갓치미혹한일이또  
 잇시리요니항상불가히예기논비라디왕이도라오신후에초치하교자하엿사오니디  
 왕은홍년을불너그죄를논지하야니아우관슈에원수를갑피슈소서관목이듯고왕승  
 상은씩하도다금일싸지두워웃지니에게말하난요인후한마암이참니에승상될만하  
 도다곳군스를호령하야하신에천노야부하강부인홍년을일하히자바오라하니군  
 사총영하교하문권을을디령하야난지라관목이조정상좌에안저호령하야왕하유야  
 들으라네가존가농부로초름왕노야되기가불가하교또하네에자석하신이비록촌공

이있다하나연왕으로더부러교통하야반심을두어난지라니가승상리관원씨에게과  
 별하야십분용셔하야요동으로아직원찬하야씨나만약너영을뜻지아니하면네에일  
 문이참혹할썩외라당초에네자식이디사마디도독이되야연국을치라하엿거날연국  
 을치지아니하고던조가읍시먼저유현국을쳐서제의시비이침흥년을너왔시니그죄  
 가죽지아니하며또너가승전반사하오미네가집에잇서영접지아니하니그무도함이  
 어디잇스리오네죄가죽어맛당하니가특별이용셔하야북방에원찬한다하니노야  
 번덕충직하고인후하야분노함이읍서나금일에당하야는분심이디발하얏는지라관  
 목을보고일장디소하야왈네가금일은흔던동디하야나를이갓치하나우리황상은승  
 군이시라불공한형위를하지말지어다너가네손에죽으면죽엇지네에강포를받더북  
 방에원찬하리요너가네에신하아니라웃지하야네에말을쫓치리요우으로황던이잇  
 고티조황제에신령이기신나무섭지도안이한야자고이리로역적이무수하나왕밍동  
 탁에지난놈은너하고관원이로다하며호령이추상갓트니관목이디분하야군사로히  
 야금곳죽이라하니관원이말니여왈디왕은일지기분노하심을참으소서저거시번디  
 노망이잇서하음이니십썩용셔하지와죽이지말으시고북방으로원찬하시와디왕과  
 역한죄를표시하소서하니관원에말을쫓쳐아직물니치고강부인과흥년을불너오라  
 하야계하에엮치고왈네의서방하신이원티벽항공사로다형이던은을입어베살이에

부상서의을으리너이지중지하야연을쳐파하고오라하야디사마디도독을숨으리마  
 암이자만하고쫓시의를하야던조가읍시유현국을쳐포하고흥년을너오고금은보피  
 를무수히웃드되너에게난일기를보너지안이하고또흔연국을쳐연왕을항복바닷신  
 즉곳반사함이당연할지라반사치아니하고연왕으로더부러날마다디연을배설하고  
 연국디장가돌죄를교통하야반심을두너의리읍고무도함이어디잇스리오흥년은자  
 세히들으라너난번시촌인으로하신에첩이되얏신즉죽어도하신을성길지라유현국  
 에들어가유현요마에첩이되야씨나충병이다무엇시며실절이니수절이니별소리가  
 다잇도다여중호걸이라열여수절이라하며글을하신에게부치여티조황제가근심하  
 사관수리장군을보너시미네일신으로히야금죽어유현국을불키키이되야씨니그무도  
 요악함이어디잇스리오너난죽음을한하지말나하며군사를호령하야기치창검을나  
 열하니흥년이일변의통도하며일변분심이대발하야왈대왕은웃지천조를종신토록  
 성기지아니하고자충천즈되야비셔가잇다상서가잇다하고저갓치무도하며우리초  
 름왕은무순죄가잇서요동만리에원찬이웃지함인고아지못할바로다관수장군은너  
 에말을뜻지안이하고답지호식하야십여일이지나되출혈치안이하고너가출혈하라  
 하디되리여나를요마불길한말을한다하야죽이고자하더니유현대회를만나사오니  
 자취함이라웃지나를원망하리요우리초를왕은마암이현인군즈이시라반일만에유

현대여를쇼멸하야잡히여간여즈에중성을살릴뻔안이라민간만인에대화를읍시하  
 여씨니비록던소가읍다하나과이범죄될것이읍고천상단서에천상옥황제합서명촉  
 키가라기심이라천명을받들어형음이니웃지일호사정이잇스리요수월지간의연  
 왕을항복밧고가돌쇠를싱금하니대공을세운지라공을황상제돌여보니고심을제장  
 에게밀워공훈을자랑치안이하거날웃지사심이잇스리요남천에혹운이빅일을가리  
 여그명낭한광체를일은지라대왕이무순면목을듣고이갓치하며초름왕과는무슴대  
 수가잇서일문을이갓치하노슴약에하엿씨되상현즈는앙급삼세하고폐현즈는신수  
 그히하고질현즈는기명이불전이라하야씨니웃지장구히복록을바드리요악한마암  
 을너버리시고착한마암을가저우으로황상을성기고날로현량한사름을나와그적분  
 을다하오면무어시부족할가대왕은회심하소서관목이들으미수괴지심이가득하나  
 쇼인에마암이라대노익심하야알너는촌인여즈라웃지이갓치말이불공불순할가요  
 망하고방자훈년이이갓치비양원역하야너에전정을말하니천찰만육할년이어대또  
 잇스리요군사를호령하야꽃디칼에목을베이라하니군소총령하고주기라하미관원  
 이흥년에안석을보미아우관수에싱각은고사하고불갓튼육심이나셔가만이싱각하  
 되저거설방금죽이라하난디너가죽이지못하게하면저거시반다시너의은공을알지  
 라니가사름으로하야금불으면제가여중호걸이요하신을위하야천만고초를다지나

되총열를일치아니하야씨나너말을웃지그역하리요하고관목에게고왈저거시번시  
 촌인이라예절을아지못하고말슴을불공이하와되왕을노촉하온지라맛당이주글죄  
 를범하야씨나살지불상이라십뻔용서하시와살여주소서너에년고로인연하야주  
 오면너가참아못할비로소이다하니관복과관원은참마암이상일하야오장을서루밧  
 난터이라관원에말을쫓쳐아죽용서하야물니치고강씨부인을불너게하에업치고그  
 자식을보니진소위경국지식이라그마암을보라하야호령하야알네에서방이국은을  
 아지못하고연왕으로교통하야반심을두고민심을요동하야요동에원찬하야시나제  
 장을해치지아니하고의면적으로만원찬하니이갓치무도함이어디잇스리요너에일  
 문이도시요악한지라너에서부하유부자는북방에아직원찬하고흥년을죽이라하  
 더너리승상이강권하야아직죽이지아니하얏시나반다시불원간의별반치할거시  
 요너너의셔방에죄로써당장죽이라하여씨너에안석을보미청춘이불상한지라  
 아직용서하야보너노니흥년으로더부러네집에도라가잇서너에명령을기달이라하  
 며창검이나열하고호령이청련빅일에뇌성이진동하는듯한지라강부인들이미분  
 한마암이디발하야두발이상지하고모골이송연한듯관목을보고디척하니심々규중  
 에처하야외인남자로언어가읍더니금일처음으로다네가무슴일로우리디왕을요동  
 만리에원찬하며또너난네부모도아지못하난야노오노하야이금인저노라하얏거날

철십노인우리노야니외분부슴일로북방에원찬하나아직용서한다아직촉이지아니  
 한다이갓치무도합이고금천지에잇서리요네가되々로국록을먹고천은을아지못하  
 야황상을니치라하되우리초람왕에충성종직하심을염여하야무죄한군조호걸을알  
 상고간하야원찬보니고네뜻되로하고자하니무슴변괴엇고상천이무섭지아니한야  
 이무도한역적놈아딘왕부커가무엇시부족하야히필역적이되고자하는요역적에마  
 암은아지못할비로다삼시간자충천조라하야호일날만민에천참만육을면치못하고  
 슴족을멸하는고네가우리황상께불공한행위만하면우리디왕들이시고육장집고공  
 중에행하야사방으로군사를모집하며천상단서폐쳐들고네에목을구월한산략엽  
 갓치일진광풍을만나이산저산차갈제모양도표박하다저기안진리관원아네가승  
 상이나이무도한놈아너는무슴일로남관북과동모하야천하만고에괴악망칙한역적  
 이되난요불상하고가공하다너에두놈후일날신세여네에말을후세에초동목수들이  
 라도이산저산이들저들단이면서디명역적남관북과리관원에목비듯물은풀을어셔  
 비여한집하고수음조흔둥구나무아리가셔낫쌈한심잘가이와갓튼루명을면치못하  
 리니웃지척은치아니리요네가무슴능력으로우리덕을망하고자하난요하며호령이  
 밍열하며위풍이당돌하니관목이듯고기가막기여한번미소하며왈속기죽고자하야  
 이갓치흔다하고노야부々는일변북방으로원찬하고강부인과홍년은하옥하라하니

하문에작일부귀영화가금일고초간난이로다철십노인노야부々못외의화를만나천  
 금갓치귀한아달초람왕을오동만리에원찬보니고청춘소부어진며나리와여중호걸  
 충성도지극하고만사의민첩한홍년을심々육중에가두우고북방만리차갈식북풍  
 한설치운날에초수오산도로난이라길이흠하야갈수이나소々씩발철십노옹과력부  
 쳐갈수이나거름々々이탄석이요노상에눈물흔적이라구천에서모친충성국은을싱  
 각고역적남관북과리관원을싱각하미자년이쏘다지논눈물리육철왈씩은장마비  
 갓치디방천리하야방타지리하고절치부심미친한은하운이다괴봉이라비오고기인  
 하날에여름구름이천래만형변화하야을은난듯범아부에등창은돌지로다수양산빅  
 이숙제치미아사하신절기만고에장하도가연하도다니팔조여장사십년고초격신  
 한지디충소무는충열도지극하도다사풍한설차고치운날에웃지하여지나갈고죽고  
 자하나초람왕우리아달그러웃지하나사々이봉변이요쳐々이고성이라창랑가한곡  
 조불은후소상강점은날에풍덩실째저어북장하야씨면슴여디충혼을바들손야불상  
 도하고분한도하다남적에강포를바디북방원찬가단말가이동々々하더니노상에괴  
 절하난지라왕부인은정신이답々두눈이감々아무랄줄모르더니그괴색함을보고부  
 들고이동하야가삼을주먹으로쌍々치다가또흔괴절하니불상하도다노야부々씩발  
 노인괴사하신시체누가잇서거더줄가이씩남관북이노야부々를북방에원찬보니고

니심으로 생각하되 강부인에게 자색을 보니 욕심이 더 발하여 웃지하면 저거 설웃들고  
 야 그수치함을 도라보지 안코 다만 호식리짜말알아 옥에가 두우고이부시랑오춘화로  
 히야 금천금을 주워왈 강부인을 달니 여그마암을 돌니 게하라하니 춘화라하는 자는 번  
 시위인이 찰난하며 언변에 수단이 잇서 타인에 불복함과 불통함에 더하야 능이 하난  
 자라듯고 더하야 야반에 등을 발키고 옥문을 열고 들어가 강부인을 감언리설로 달니  
 되종 불충지하고 치지도 외하난지라 춘화한 참언변을 수단센르러논데 웃더하인  
 이서간한 장을가지고 호열부인을 차전하거날 춘화중지하고 그서간을 다보기를 기  
 달이더니 호열부인이 보고 아무말읍시신찌 못할신작버서던지듯하난지라 춘화의심  
 하야 호열부인을 보고 용서하시요하고 서간을 들고 보니 승상리 관원의 필적이 분명하  
 디그서이에 더강하여 써되니 아우 관수에 죽음은 다 천수라 수원수구하리요네가 단왕  
 에게 죽을결니가 역권하야 그히를보지안이 하얏시니 너난여중호걸이라 웃지니의은  
 덕을아지 못할쇼냐 하신은 만리요동에 원천하야 씨니그싱사를아지 못할지라니가년  
 금육십이라 그역은읍다하나 흥년은 감니 할듯하니 구일지정을싱각지말고나와 갖치  
 퍽발청춘이 동거하야 부커를한가지함이 엇더한요 금야숨경의하인으로히야금등을  
 보너리니 해년니사하라 하얏거날 춘화보고 홀연의기가 발하야 일어저비고왈니년금  
 반박이지나되이갓치 무도무의함을보지 못하얏도다 아우리역적이라하나마암이이

지경에 밋치리요 남관복이저를천금을주며 초람왕비강부인을 달니여오라하기예왔  
 삼더니 또리관원이이갓치 무례하게서간을하야사오니아무리춘화갓치금천만알고  
 인의를아지 못하나 웃저갓치 무도무의한놈에일을홍리요저는 금야로부터심산공  
 곡중으로도망하야 여성을보니고자하나 두부인에게 명은시각에잇난지라 웃지하면조  
 홀잇고하며 의리가외면에나타니난지라난치날호열부인천만동상다지니고여익  
 이미진하야거사익심으로또이지경을당하리비참한싱각은즉양읍시나역제하고미  
 소왈고명에마암이착하온지라말씀을듯자오미감격무지하오나니에마암을돌니지  
 못하리니부지럽시입만수고치말고속기도라가관목관원에게말하여져박비죽이  
 여달나고하라하니춘화듯고단식하야왈진소위녀중군조로다네수단으로난달니  
 지못하겟다하고곳돌아가나라 호열부인이 춘화를보니고싱각하니강씨부인과자과  
 몸에 더화가당도하야난지라 암々이싱각하미사세가명낭하고촉급한지라 유현국에  
 엇든금척을항상이상하고괴이하야 품속에감추워더니 홀연이싱각하고금척을니여  
 자란하야왈금척은들으라금척과옥장이다용궁조화분명한지라 옥장은 초람왕이가  
 지시외연국티군철십만을삽시간에파하고공중을꼭지갓치행하건이와금척은니  
 게온지오리되고조화를아지 못한지라이제 초름왕비강씨부인과 흥년에 신명이시각  
 에잇난지라금척조화웃지아지 못하리요우리두사람에신명을살피사긋고구든옥문